



Web Contents



2024년 05월 06일 05시 22분

목포시, 청년창업자 종잣돈 지원받으세요

2021.04.01 조회수 283

- 전남 유일 청년창업자 특례보증사업 시행, 2019년부터 매년 2억원 출연
- 1인당 연간 금융비용 46만9천원 절감...청년창업자 생존·일자리 유지 순기능

목포시가 창업 초기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청년창업자 자금난 해소를 위해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한 청년창업자를 위한 금융(종잣돈)지원 사업을 올해도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해 4월부터 추진한다.

종잣돈 지원사업은 목포시가 2억원을 출연하면 전남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10배인 20억원을 보증해 청년들이 지역신보에 일정수준의 보증료(1% 이하)를 내고 보증(최대 3천만원) 받으면 금융기관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까지 청년창업자 종잣돈 지원 사업을 위해 총 4억원을 출연하고 188명의 청년창업자에게 41억 5000만원 을 보증했다. 이를 통해 대출받은 청년 창업자들은 1인당 연간 금융비용을 46만9천원(이자 38만원, 보증료 8만9천원) 절감할 수 있었다.

이는 일반보증을 이용할 경우 평균금리 2.71%, 보증요율 1.2%를 적용받지만 종잣돈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평균 0.99%금리에 0.8%의 보증요율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이다.

목포시와 전남신용보증재단이 사업 참여자(188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 여파 등 시장 악화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매출액 증가 및 수익성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해 종잣돈 지원사업은 청년창업자들의 생존과 일자리 유지에 순기능 작용을 하고 있다.

2019년 6월 개업해 수제 도라지청·금굴정과, 목포주전부리 3종 등을 판매하는 달달청나라 장승혁 대표는 “자금을 겪는 창업초기에 종잣돈 지원사업을 통해 재료와 고가의 장비를 구입했고, 금융비용도 절감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청춘빌리지 오소잉에서 예약제 키즈베이킹 교실을 운영하는 요니요니 배나영 대표는 “창업초기 자금 안정에 도움이 됐다. 대출이 어려운 초기 청년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지역 청년들의 꿈과 열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청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금지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남신용보증재단(285-870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일자리청년정책과 강자영(270-8490)



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



1.목포시, 청년창업자 종잣돈 지원받으세요.jpg (168 hit/ 201.3 KB) ↓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한국섬진흥원 목포시 유치 지지세, 전남으로 확산

다음글

목포시, 야간 공공심야약국 1개소 시범 운영

COPYRIGHT © MOKPO-SI. ALL RIGHT RESERVED.

MokPo - Si
Web Contents

